

언덕교회 이야기
『농촌과 목회』 2024년 봄호 기사

1. 작은 교회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언덕교회가 창립되고 작은 교회 운동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언덕교회는 작은 교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언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언덕은 골고다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기도하지만, 현실의 슬픔과 걱정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 언덕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며 새 희망을 갖기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친 삶에서 안식이 필요할 때 떠올리고, 언제라도 돌아갈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반갑게 맞아주는 고향의 언덕이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언덕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라만 봐도 편안하고 그래서 보고 싶고 기대고 싶은 따뜻한 교회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기 위한 수고를 감내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생활이 아니라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덕교회가 20주년이나 되었으나, 주위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위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충실히 지키려는 신앙을 추구하는 교인들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립 초기에는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픈 분, 언덕으로 오세요: 언덕교회, 민주·개혁·개방적 교회 지향”(뉴스앤조이, 2003년 4월 28일), “언덕교회 설립 3개월부터 외부 지원: 선교·사회복지·기독시민운동 등 외부 지원 확대계획”(뉴스앤조이, 2003년 7월 2일), “평신도 개혁모임 출범”(중앙일보, 2003년 10월 24일), “평신도 중심의 교회 ‘무소유 신앙’ 실천”(중앙일보, 2004년 1월 3일), “평신도 설교로 더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들: 언덕, 새길, 강동, 향린교회 . . . 철저한 준비·성숙한 의식이 기초”(뉴스앤조이, 2004년 6월 10일) 등 교회개혁운동에 대한 관심에서 언덕교회는 늘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것은 “MBC 100분토론: 종교인 소득세”(2008년 1월 31일)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덕교회가 강조한 종교인 소득세는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해 교회는 법인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고, 이 일은 실제로 종교인 소득세로 관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언덕교회는 성장통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지속되고 여러 방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평신도와 목회자의 협력, 정치적인 견해의 표출, 복음주의 신학의 내용과 실천 등에서 여전히 공부하며 보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덕교회가 창립하게 된 배경에는 이상과 같이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면서, 교회안의 비성경적인 모습을 발견한 복음주의의 학생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교회안의 제도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의 한 줄기가 바로 언덕교회의 창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 회복, 대형교회 지양, 예배전용건물 거부, 목회자세습 반대, 민주적인 교회운영의 모색, 재정의 투명한 사용, 목회자 세금납부, 교회의 법인화 등의 목표를 향해 언덕교회가 창립되었고, 이를 위해 작은 교회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신앙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을 고수하고 회복하려는 종교개혁운동의 일환으로 20여 년 전 언덕교회가 작은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딘 것입니다. 제자도, 평화운동, 나눔 공동체를 모색하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가능하다면, 언덕교회의 존재 자체가 경쟁과 좌절과 절망으로 찢든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공동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소망을 함께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언덕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주의 교회로서, 교회가 사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고민하며 행동을 모색하던 이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처음부터,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건강한 작은교회연합, 성서한국의 활동에 늘 함께 했고, 현재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와 함께 교회개혁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덕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의 나아갈 방향은 교회 민주화의 모범입니다.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은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와 평신도의 우민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민주적인 교회와 권위주의적 교회가 되었으니, 이를 위한 치유는 목회자의 권위주의가 멈추고 평신도가 각성한 기독교민이 되어 교회에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바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교회는 창립과 함께 규약을 제정하였고, 이 규약을 통해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규약과 함께 시작된 교회는 한국에서 언덕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평신도의 주체적인 역할이 목회자의 전횡과 사제적인 권위주의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언덕교회는 목회자가 주도하지 않고, 뜻있는 평신도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언덕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협력적 섬김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였습니다. 언덕교회의 평신도들은 그래서 이제까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신학공부를 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평신도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강단은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소중한 믿음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묵상한 말씀을 소박하지만 진지하게 나누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친숙하고 새로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설교 후에는 “설교에 대한 질문시간”을 통해서, 설교 내용에서 다소 부족하게 설명된 부분이나 이해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묻고 대답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또 하나의 교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언덕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기에 큰 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재정을 보고하고 재정보고는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30% 이상을 외부로 나누려는 노력을 창립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민주화의 모범과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지속하는 언덕교회는 이를 위해서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여야 함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대형교회를 이상으로 하거나 크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덕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2. 언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언덕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립 때부터,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회자는 평신도와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세운 교회는 구체적으로 규약을 통해 드러납니다. 규약에는 언덕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고자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4대 비전과 10대 실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4대 비전이 언덕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등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지침 10가지는 가족예배의 시행, 정기적인 사회봉사, 정기적인 흠여지는 예배, 직분 임기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관리지출의 최소화로 이웃사랑 실천, 예배당 전용의 재산 소유 지양, 말씀사역에 전념하는 교역자와 운영에 주축인 평신도, 교회개혁운동 참여, 민주적인 교회규약 보전과 실천 등입니다.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당회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예배, 교육, 봉사, 전도와 선교 등을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해 연말의 인사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운영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운영위원장은 평신도가 맡으며, 목회자는 운영위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매달 첫 주에 모여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협력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토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이 때가 모든 의견과 상황을 서로가 이해하려는 민주적인 노력이 꽃을 피울 때입니다. 어느 누구의 의견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의 경험은 바로 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의견과 계획은 그래서 모두가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평신도와 목회자가 협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운영 자체보다는 전문적인 설교와 신앙 및 신학 교육, 그리고 심방 등을 통해서 교인의 영적인 성숙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대개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덕교회의 모습은 사실 한국의 미래교회의 모습에 대한 과감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평신도 설교, 공동 축도, 공동 성찬 등으로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담당하던 부분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평신도이며 동시에 모두가 목회자라는 종교개혁의 이상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언덕교회는 창립부터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목회자가 주도하지 않으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로 염려 어린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언덕 교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덕교회가 잘 되어야 평신도 중심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신도들이 전업으로 목회를 할 수 없으니, 서로의 관심과 소질에 맞는 사역을 찾아 서로 격려하며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과업이라 할 예배, 교육, 봉사, 전도와 선

교가 평신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는 매주 1부와 2부로 구성됩니다. 1부 예배는 대략 40분 정도로 진행하며, 기독교고전 읽기(1주), 찬양과 기도(2주), 공동체성경읽기(3주), 다함께 드리는 예배(4주)로 구성되며, 5주가 있는 달에는 평신도 설교나 흠어드는 예배를 시행합니다. 5주차에 흠어드는 예배(1년에 2회)가 계획 되면, 각 구역별로 평소 가고 싶었던 교회나 추천받은 교회를 방문합니다. 구역별로 방문한 후에는 그 교회로부터 받은 인상과 배울 점 등을 구역별로 정리하여, 언덕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점검합니다. 2부 예배는 특별히 2주차에 초청설교나 평신도 설교가 진행됩니다.

평신도 설교는 매해 8회 이상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언덕교회를 특징짓는 부분입니다. 평신도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교인들 가운데 평신도 설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교인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본문으로 택한 성경말씀을 더욱 진지하게 읽게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얻은 신앙의 지혜를 나눌 때 목회자들이 전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 전통 가운데 퀘이커를 통해 소중하게 지켜졌으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요 요소인 이 평신도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께 주도권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쉬운 목회자의 설교와는 달리, 평신도 설교는 교인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며, 각자의 삶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소박하게 전달되기에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가정, 직업, 독서, 생각, 관심, 여가활동 등 목회자가 생각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며, 전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 설교시간에 역동적으로 전개됩니다.

최근에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감동을 체험하기 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양단은 매주 1부 예배를 위한 찬양을 통해, 교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주차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는 온전히 찬양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4주차 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는 어린이 찬양단과 함께 온가족 예배를 진행하면서, 예배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주차의 공동체 성경읽기는 평신도들이 남자반과 여자반으로 나뉘어, 함께 정해진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말씀에서 받은 각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성경읽기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성경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과 전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3주차 오후 시간에는 독서토론을 통해 신학적 주제나 견해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문적이어서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신학전문도서나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도서를 읽는 북클럽은 그 오랜 역사만큼 진지한 고민과 대화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는 전문적인 정보나 배경 등을 설명하는 것에서 멈추고, 그 외의 사회와 발제와 토론은 평신도들이 진행합니다.

교육은 특별히 평신도들의 관심과 능력이 창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는 “요람에서 천국까지”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영아부터, 유아, 유년, 초등, 중·고등,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인 신앙교육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언덕교인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각 연령대에 처한 다양한 계층이 있기에 때로는 통합교육으로 때로는 맞춤형교육으로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직접적인 교육은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니다. 이 교육 부분에 많은 교인들이 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관심과 시간뿐만 아니라, 때로는 청년들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하여, 식사 그리고 MT 등을 통해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년부의 교육은 내부·외부 특강을 통해서 계속 되며, 위에서 언급한 순서들을 통해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 등에 대한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봉사는 언덕교회가 창립초기부터 전교인이 꾸준히 실천해온 사항입니다. 독산동 섭리의 집, 서울역 나사로의 집, 용산 쪽방촌 도배와 노숙자 생일파티, 교남소망의 집 봉사활동 등을 하였고, 현재는 서울역 드림시티에서 홈리스 생일파티와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재난과 전쟁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였는데, 이라크 평화지원(2004년),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모금(2004년),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2022년), 미얀마 민주주의운동 지원(2022년) 등을 하였으며, 현재도 난민 두 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미자립교회 한 곳(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두 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팬데믹 이후 교인들을 위한 긴급구제를 위해 공동체나눔기금과 청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개혁운동을 하는 단체와 문화운동과 신학운동을 하는 곳에 후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재정의 30%를 외부와 나누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정도로 교인들의 헌신은 더욱 빛이 났으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순위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부분은 사실 언덕교회가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활에서 교인 각자가 믿음과 실천, 고백과 삶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자연스런 성장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선교와 국내선교는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선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최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3. 언덕교회 부임과 그 동안의 목회 및 사역에 대하여

언덕교회에는 이제까지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도 있고 조용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언덕교회에는 풀타임 사역자는 없습니다. 두 목회자는 공동목회자로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덕교회에서 사역한 목회자 모두가 동일한 원리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평신도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며, 목회자와 평신도는 단지 직무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평신도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뒤에서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게 협력과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담당하기 힘든 교단연합운동, 교육, 심방, 연속 또는 강해 설교의 부분을 목회자들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자들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연속으로 설교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성경 전체를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덕교인이 있는 곳이면 그 곳이 어디든지 함께 하려는 목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교인들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이제 창립 20주년이 된 언덕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너무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였습니다. 현재는 예배 참석과 헌신에서 더욱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찬양단, 여성기도회, 교육기관의 활성화, 청년부의 재기 등을 보고 있습니다. 언덕교회 안에는 여전히 진보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신앙, 사회적·정치적인 이해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사회적인 약자와의 연대와 생태계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